

오피니언

월/요/광/장

박의경



자유와 평등은 중세이후 서양에서 형성된 근대사상의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현재 한국 성인여성의 사회활동 비율은 아직 50%에 이르지 못한다. 80%를 넘어서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성과 선택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에서 시작하여 30대 초반에 급격히 낮아지고, 30대 후반과 40대에 다시 약간 상승하고 있는 M자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하고 있는 것일까? 가사일 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전적으로 지워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이 여성은 과연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또 아이를 가진 미혼 여자의 경우를 보자. 그녀에게 과연 선택의 자유는 있는 것일까? 아이를 낳아도 살인이라고 하고, 아이를 낳으면 미혼모라 몰아세운다.

자가 사회생활을 할 때 결과가 좋으면 '누구나 하는 일이나' 하면서 당연하게 보고, 나쁜면 '여자가 할 수 없다'고 폄하하는 경우도 많다.

의 문맹율은 90%를 넘어서고, 여성은 남성의 동반 없이 외출할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여성의 선거권을 무력화시킨 셈이다.

이러한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제도나 절차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에서의 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어 그러한 이념의 실행을 위한 제반 조건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현실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할당제나 여성채용목표제, 여성고용목표제 등 일견 보기에는 평등에 위배되는 듯한 정책의 타당성이 있다. 현장에서 움직임이 보여야 인식으로 전환되게 되고, 인식이 전환되어야 이 사회의 자유와 평등이 완성되고, 자유와 평등이 완성으로 다가서야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비로소 제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의 완성 여부는 여성 문제의 해결에 그 관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여수엑스포 남북공동개최론 현실성 있나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지난주 목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2012년 여수 엑스포를 북한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한 것은 당황스럽다.

우선 남북이 엑스포를 공동개최하려면 북한이 국제 박람회 기구(BIE)에 가입부터 해야 하는데,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 성과는 있을지 모르겠다.

출자총액제한 폐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재벌정책집행에 대한 관련부처 논의의 핵심은 출총제 폐지 시점이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확장과 충수일가의 독단적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87년 도입됐다. 그러나 외환위기이후 우리 경제여건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출총제는 국내기업들의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여유자금을 쌓아놓고도 출총제에 묶여 국내 투자를 주저하면서

말은 허풍이다. 그렇지 않다면 북측 개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2012년 여수 엑스포를 북한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한 것은 당황스럽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는 걸 경계해왔다. 정동영 의장은 전북에서 호남고속철 정읍역 신설 검토 약속을 한데 이어 충남에서는 공주역도 만들어 주겠다고 공약했다.

출자총액제한 폐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성장 잠재력 제고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출총제 폐지로 재벌 오너들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증권집단 소송제를 비롯한 여신제도 개선과 시장에서의 경영감시 장치 등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출총제는 국내기업들의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여유자금을 쌓아놓고도 출총제에 묶여 국내 투자를 주저하면서

기고



이병열

급년 4월 19일은 4·19혁명 제46주년을 맞는 날이다. 광주는 마산 서울에 이어 4·19혁명의 3대진원지이다.

을 모아 2002년 4월 19일에 광주 4월 혁명의 발원지인 광주고등학교에 광주 4월 혁명 발상기념탑을 건립, 제막식을 갖고 매스컴에 보도하여 광주 4·19역사를 광주 시민과 학생에 고취시켰다.

의향 광주는 당연히 그 한 가운데 있다. 4·19 그날 광주고등학교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서으로써 폭발한 광주의 학생 혁명은, 광주시대 고등학생(광주고·상고·공고·조대부고·일고·농고·송일고·광주여고·전남여고 등)과 시민이

이제 4·19혁명 46주년 기념일을 맞아

4·19혁명과 義郷 광주

연합해 격렬한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 7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020만원 제작비를 들여 광주 4·19역사를 기릴 수 있는 세번째 기념물이 탄생한다. 본 시비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4·19혁명 제46주년 기념행사(광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제막식을 갖는다.

성인오락실 우후죽순... 적극 단속 나서야

시내에 나가보면 성인게임장이 성업 중이다. 거역의 판돈이 오가는 성인 게임장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경찰에서 어떤 엄포를 놓더라도 소나기만 퍼하면 된다. 업계의 탈법적 발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박 일상화는 개인과 가정의 파괴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의 일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

기고



안병량

중국 사마천의 '사기' '항우본기(項羽本記)'에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초나라 항우가 사면을 둘러싼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위장된 초나라 노랫소리를 듣고 자기편의 군사가 이미 항복한 줄 알고 놀랐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에서 발생하며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바이러스에 감염된 육류·사료·물·공기 등을 통해 전파된다. 그러나 AI와 달리 구제역은 사람에게에는 전혀 감염되지 않는다.

지난해 북한의 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 중국·러시아의 구제역, 일본의 광우병, 태국·필리핀의 AI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에서는 잇따른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은 축산농가는 물론 축산업계 전반에 걸쳐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축방역 방심은 금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물적 및 인적교류가 점차 개방화됨에 따라 각종 해외 가축질병의 국가간 전파는 점차 증가되는 추세다.

가축사육 환경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축산업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수출입 등 축산물 통상협상에서 운신의 폭은 좁아지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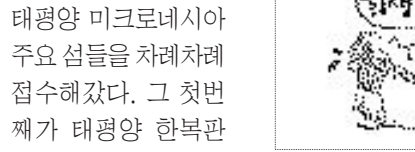
시내버스 불친절·정거장 무단통과 여전

매번 버스요금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외치는 시내버스들이지만 서비스 개선은 커녕 불친절과 차내 불결, 정거장 무단통과 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폭우전을 해서 내릴때까지 얼마나 맘을 졸였는지 모른다. 출퇴근 시간에 운행간격을 지키지 않아 거리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 짜증이 나는 경우도 많다.

無等鼓

슬픈 비키니



프랑스에서는 '비키니' 축하 이벤트가 한창이다. 프랑스인 루이 레아드가 1946년 처음 선보인 비키니가 올해로 탄생 60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작은 섬들'이란 뜻의 '미크로네시아'는 중서부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섬들을 통칭한다. 에메랄드 빛 바다와 작열하는 태양으로 천혜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그 역사의 이면은 전쟁과 식민, 빈곤으로 점철됐다.

Table with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